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013 Autumn

Vol. **78**

# 희망미소

[www.kclf.org](http://www.kclf.org)



## 함께 여는 아름다운 미래



최현만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부회장

언제 그랬냐는 듯 무더위도 주춤해지고, 빨간 아기 단풍잎이 방긋하고 웃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도중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엮고 씨앗 한 톨을 살아 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타 뚝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를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담쟁이의 극복의지를 보며, 우리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희망미소를 찾아주기 위해 참고 노력하며 견뎌내는 부모님의 모습이 담쟁이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 실천'에서 출발하여, 사회 구석구석까지 희망의 동심원을 퍼뜨려 행복의 파이를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는 지난 해 연을 맺고, 소아암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랑실천기금을 모아 치료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아암어린이 항균키트 '호호상자'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편지를 받았을 때, 미래에셋생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느끼게 됩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꿀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도우며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열기를 다시 한번 바래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님들이 있기에 소아암 어린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느낍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미래에셋생명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만 기다리고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아암 어린이 가족 중에도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족을 만나보았습니다!

###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남편이 베트남에 여행 왔을 때 처음 만났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베트남에서 결혼한 뒤 한국에 왔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봤고, 한국어 학원도 다녔기 때문에 남편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남편도 베트남어를 아주 잘해요. 베트남어 자격증도 있어요.

### 한국생활은 어떤가요?

남편이 잘해주고, 시부모님이라도 편하게 지내요.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가 없다는 것이 외롭고 심심하기도 하고, 베트남 가족이 많이 그리웠어요. 태인이를 임신하고는 입덧도 심하고, 한국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남편과 함께 베트남에서 지냈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다른 이주여성들과 함께 모국의 문화를 알리는 공연도 했어요. 그리고 강의도 하고, 다문화가족 상담 통역이나 간단한 번역일도 하며 즐겁게 지냈어요.

### 처음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되었나요?

태인이가 계속 다리, 엉덩이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이 자주 났어요. 백혈병 진단을 받고 많

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계속 속상하고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같이 치료받고 있는 어머니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1년 이상 함께 생활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좋아졌고, 태인이가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 병원생활 중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의사, 간호사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힘들잖아요. 그때 재단 소책자도 도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이 많이 알려줬어요. 약 들어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고, 저를 잘 이해해줘서 마음이 편했어요. 진짜 가족 같아요. 마음 아픈 것, 기분 좋은 것, 이것저것 다 이야기 할 수 있어요.

### 베트남 가족들이 많이 그리웠을 거 같아요.

진단 받고 많이 힘들었고, 아이가 경기하거나 많이 아파할 때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베트남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었지만 초청서류를 만들 여

유가 없었어요. 여동생이 오면 아이도 잘 봐주고, 아이를 간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형제는 초청할 수 없게 돼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지금도 어머니는 한국에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병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냥 인사도 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잘 들었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다른 엄마들이 뭐하는지 보고 같이 하면 점점 익숙해지고, 친해질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해야 힘든 것도 덜해지는 것 같아요. 피하지 말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과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을 태인이 어머니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른 다문화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선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사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느껴요. 하지만 친절하고 착한 사람도 많아요. 한국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모두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또, 스스로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태인과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태인이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피만 봐도 울고, 혈압만 재도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보다 병원생활 더 잘해요. 집에 가면 병원 친구들 보고 싶다고 해요. 엄마 말 잘 듣고, 씩씩하게 치료 잘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늘 병원까지 운전해주는 시부모님,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남편도 고마워요. 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 다행이다.', '태인은 잘 해낼 거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밝은 미래만 기다리고 있어요.

\* 태인은 2012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입니다. \*



## 스티븐 호킹

Stephen Hawking (1942- )

스티븐 호킹은 현대 블랙홀 이론 및 우주의 역사와 시공간 개념을 정립했고 1974년에는 최연소 영국왕립협회 회원이 된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은 우주에 가 보기는 커녕 길을 수도 심지어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1942년, 열대병을 연구하는 의사였던 아버지와 옥스포드대학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 모두 말 한마디 없이 책을 보며 식사할 정도로 학구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과학과 우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장학생으로 옥스포드대학을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천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그는 하루 평균 한 시간 정도만 공부했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의 병마는 그가 옥스포드대학에서 공부할 무렵,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증상들을 간과하며 지내다가 아버지에게 이끌려 정밀검사를 받은 후, 21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루게릭병은 몸의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어 결국엔 호흡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치병입니다. 의사는 그에게 이년 반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막 꿈을 펼치려는 청년과 가족에게 불치병 진단 사실은 청천벽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모든 것이 지루하기만 했었는데, 병으로 인한 긴박감이 그를 열정적인 과학자로 만들었다고 회고합니다.

발병 이후 계속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연구 발표를 계속하였지만, 병마는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게 되었으며, 결국 목소리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캘리포니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스티븐 호킹을 위해 머리나 눈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피킹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발명은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남은 그의 뺨 근육을 감지해 그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발병 이후 50년간 그는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어 살아내고 있으며, 오늘도 우주의 신비를 풀고 있습니다. 주위의 도움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업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의지와, 그를 도운 주위의 관심과 애정이, 불가능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삶을 보며, 세상의 어떤 고난도 때로는 인간의 의지 앞에서 한걸음 양보하는 게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글/그림 이지희 작가

## 운을 만들어 가는 사람

외모는 흡사 영화배우 유오성을 닮은 '허허' 웃으며 모든 걸 품을 거 같은 성품의 소유자, 윤원기 완치자를 소개합니다.



윤원기

1988년생  
2006년 7월 뇌종양 진단  
2006년 12월 치료 종결  
2013년 현재 고등학교 수학 교사 재직 중

### Q. 3월 첫 학교로 발령 받았다고 들었어요. 생활은 어때요?

A. 아, 정신없지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까 계속 계속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어요. 저만의 교수 스타일을 찾는 기간인 거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쉽지 않지만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멘트를 쳐야 할지 고민하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이 있지요. 그런 일들도 처리하고, 얼마 전에는 수학여행도 다녀왔습니다.

### Q.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A. 저는 재미있어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함께 농담도 하고 허물없이 지내면서 정도 생겨요. 어느 날, 참관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아이들에게 부탁 했죠. '애들아, 오늘은 다른 곳에서 너희 수업하는 거 보러 오시니, 좀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구요. 그 날, 정말 아이들이 모두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며 열심히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관하는 분들이 다가자, 아이들 하는 말, '선생님! 오늘 우리 진짜 잘했죠?' 덩치는 어른만큼 크지만, 귀엽고 예뻐요.

### Q.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 방학이 있다는 건데, 첫 방학에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A. 학교에 갑니다! 일명 '수학포기자 예방'을 위해 방과 후 수업을 맡게 되었어요. 요즘 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하죠. 아주 잘 하는 아이, 혹은 일찍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 이 상황이 안타까워서 방학동안 한 반을 개설해서 수업 중이에요.

### Q. 수학 선생님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요?

A. 처음부터 선생님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과를 가게 되고, 졸업할 즈음 직장에 대해 생각하면



서부터 선생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령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 정말 매력적이고, 잘 선택했다. 그리고 나한테는 딱 천직이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돼요.

**Q. 공부를 꽤 잘 한거 같아요. 대학교, 대학원, 임용고시까지 한번에 어떻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3 시절은 딱 발병과 치료기간이었네요?**

A.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위에 있는 아이는 많았고, 제 뒤에 있는 아이는 적은 편인 그런 석차였어요. (웃음) 3학년에 올라가면서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그 때 발병했어요. '아, 이런 때, 왜 발병했을까?'라고 생각할 법도 했는데,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치료 받으면서도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학교에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치료 중에 수능시험도 봤지요.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제가 지원한 학교는 제가 잘 하는 수학 등 몇 개 과목만 잘 보면 되는 학교였거든요. 과목마다 성적의 편차가 심한 저한테는 유리한 전형이었죠. 그리고 임용고시도 많이 준비한 편은 아니었는데, 커트라인 가까이 턱걸이로 합격했어요. 이것도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Q.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선생님의 성품과 실력이 만들어낸 운인 거 같아요.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A. 저는 수학교사이기 전에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과 친구처럼 교감하고 끌어주는 인격적인 선생님이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인성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인성지도부'에 소속되어 있어요. 예전 말로는 '선도부'이지요. '인성지도부' 하면 무섭고, 힘쓰는 선생님들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웃음)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싶어요.

**Q. 아무래도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았던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 없는데요. 그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A.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보던 중,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단순한 학업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수술 전까지 병에 대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후 뇌종양이라고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의사선생님에게 '수능을 보

## ○ 소아암을 이긴 아이들

고 나서 치료를 받으면 안되나요?', '내일 학교가서 친구들 봐야하는데, 오늘 검사 언제 끝나요?' 등의 말도 안되는 질문들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태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당시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저를 놀라지 않게 하려던 말씀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에 매우 믿음이 갔어요. 완치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치료받았고, 치료 중에도 의료진 선생님들의 겁먹지 말라는 말을 잘 새겨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힘든 치료였지만, 생각보다 힘들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치료 중에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귀찮게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어쨌거나 제게 치료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완치될 수 있다.' 라는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 Q. 긍정적인 생각, 심플 마인드의 원기씨와 어울리는 치료 중 이야기 같아요. 완치자로서 치료 중인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 부탁드립니다~!

- A. 항암치료를 받으면 많이 힘들어서 무기력해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약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절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무기력해지지는 마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난 정말 운이 없어...'라고요. '난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보자.'라고 즐거운, 스스로를 격려하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정말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사람, 이미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약 때문에 무기력해질 수는 있어도, 상황 때문에 무기력해지지 말자!' 꼭 기억해 주세요!

윤원기 완치자와 만나면서, 이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한 강함을 소유하고 있는 윤원기 완치자는 분명 본인이 바라는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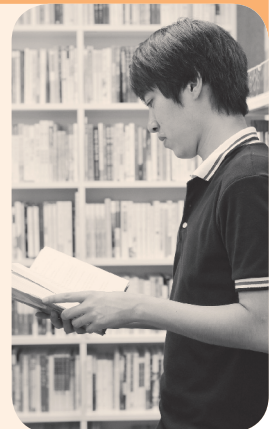
## 윤원기 선생님히 내주는 재기있는 수학퀴즈!

### 사라진 1만원을 찾아라

제주도를 여행하던 여행객 3명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합니다. 숙박비는 30만원, 3명의 여행객은 10만원씩 냅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인심 좋은 지배인이 25만원만 받겠다고, 종업원을 불러 5만원을 돌려주라 합니다. 하지만 꾀 많은 종업원은 5만원은 어차피 3명에게 나눠줄 수 없으니, 2만원은 자신이 몰래 감추고, 3만원만 3명에게 1만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3명의 여행객은 9만원씩 낸 셈이니 총 27만원을 낸 셈이고, 종업원이 가진 2만원까지 더하면 29만원이 됩니다??!! 총 30만원이 되어야하는데, 1만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 10월 31일까지 [free@kclf.org](mailto:free@kclf.org)로 정답과 함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2명에게 영화관람권 2매씩 증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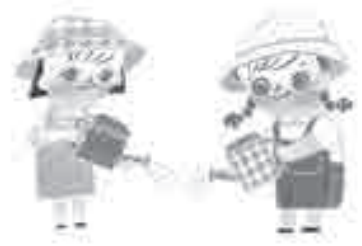
# 희망은 늘 따뜻한 곳에 머무릅니다.

## Q. 누구세요?

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초롱입니다. 이제 막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림이 전공은 아니지만 그림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어서 이런저런 그림을 늘 그리고 있어요.

## Q. 당신께 그림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그림은 저의 자존감이예요. 그림으로 저를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따뜻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물론 그림 그리는 시간은 힘들고, 때론 우울하거나 슬프기도 하지만, 제 그림을 보는 분들은 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 Q. 어떻게 재능기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A. 처음에는 제 그림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보다 먼저 재능기부를 하고 있던 이웃 분께서 재능기부를 해보면 어떨지 제의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없고 부담도 돼서 거절할까 싶었는데, 고민 끝에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이 기회를 놓쳤다면 어찌 했을까 싶어요.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림만을 그려왔던 제가 요즘은 그림에서 따뜻함이 묻어난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재능기부를 통해 제가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 Q. 재능기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A. 작은 재능기부 기회를 통해 많은 이야기들을 접했어요. 늘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이들의 사진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그 속에서 많은 걸 얻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 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나눔의 손길을 함께하자 권하고 싶어요. 희망은 늘 따뜻한 곳에 머물러줄 테니까요.

## Q. 앞으로의 꿈은요?

A.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동화책을 내는 게 꿈이랍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꿈일지라도 꼭 이루고 싶어요.

\* 전초롱님은 2013년 2월부터 그림을 통한 재능기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 한사랑의집에서는

###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 남산에 가 보아요!



한사랑의집 가족들의 진짜 집은 모두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에 왔지만 치료 때문에 제대로 서울을 둘러 볼 기회는 적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의 가까운 남산 나들이! 케이بل카를 타고 서울타워 꼭대기에 올라 아직 가보지 못한 서울 구석구석을 한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적은 자물쇠도 단단히 걸어 두었습니다. 소원이 꼭 이뤄지리라 가족들 마음도 단단히 매어 두었습니다. 10년 후, 이뤄진 소원을 거두러 다시 오기를 함께 소망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주)롯데닷컴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떡, 얼마나 아세요?



소아암 어린이 가족과 떡박물관 체험을 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 떡의 종류와 떡만드는 기구를 보고 배운 아이들이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척척 맞춥니다. 스피치처럼 흡수하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떡에 대해 배운 후 직접 떡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물조물, 고사리 손으로 단호박 컵떡케이크와 꽃산병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엔 떡보다는

빵을 즐겨먹던 아이들은 스스로 만든 떡이 맛있으며, 떡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함께 떠나요, 오즈의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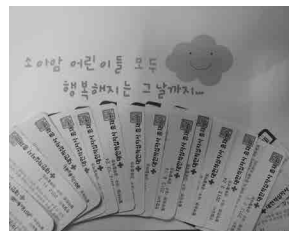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관람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울동으로 도로시와 함께 나쁜 마녀도 물리치고, 오즈의 마법사도 찾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마법사의 말처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리바트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 선물 받는 생일? 선물 하는 생일?



지난 8월 19일, 아침부터 화끈한 대구의 무더위를 헤치고 한사랑의집을 방문해 준 이종철님! 아픈 어린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헌혈하고 모아 둔 헌혈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종철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의미있는 자신이 되보고

싶었다며, 생일 당일 헌혈증을 조심스럽게 전하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전해 준 헌혈증을 살펴보니 거의 매달 성분 헌혈을 실천하고 있는 진짜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이런 생일, 여러분은 어떠세요?

##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 용감한 아이 상장 수여식



전남 한사랑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엽고 수줍은 아이는 묻는 말에 작게 대답하고 행동도 조심조심합니다. 그러나 소아암 치료를 위해 주사 맞고, 검사 받을 때는 남다른 용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단에서 보낸 상장과 선물을 부모님이 전달하며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보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람이는 어느 누구보다 용감하게 소아암 치료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겁니다.

하람아!

우리 하람이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치료받는 모습에 엄마, 아빠가 더 힘이 난단다. 웃는 모습에 행복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치료받아서 더 건강해지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즐겁게 지내자, 고마워! 그리고 많이많이 사랑해!

- 엄마, 아빠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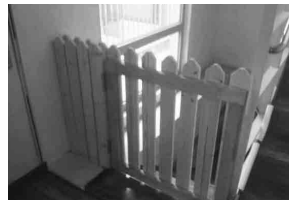
##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 신고하는 1층 아가



요즘도 신촌에는 아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받는 사이 부쩍 키도 크고, 말도 늘고, 재롱도 늘어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을 하면, 1층에 있는 아가가 쓴살 같이 달려와 말을 겁니다. 큰 목소리로 '이모!'라고 먼저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담당 사회복지사를 끌고 형광등을 가리키기도 하고, 컴퓨터를 가리키기도 하며, 뭔가가 고장이 났다고 온 몸으로 신고합니다. 아! 아가가 이제 담당자를 뭔가를 고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무수히 보며, 특정 사람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터득한 우리 아가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 자유를 꿈꾸는 2층 아가



신촌 한사랑의집은 2층 주택입니다. 요즘 부쩍 아가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놀이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잠깐 눈돌린 틈을 타 아슬아슬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한 안전보호대! 안전보호대 설치 이후, 우리 아가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싶어 안전보호대 옆 계단에 앉아 아랫층 계단을 보며 하염없이 자유로운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원 결정  
환아

2013. 6. ~ 2013. 8.

이식비

김동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준(급성림프모구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1,5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윤(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800만원  
이○영(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1,000만원  
이○우(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1,000만원  
황○지(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1,500만원

세마을금고중앙회

김○연(비호지킨림프종/서울아산병원) 800만원  
김○수(신경모세포종/영남대학교의료원) 800만원  
정○수(황문근육종/서울아산병원) 800만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주)  
백○환(골수이형성증/국립암센터) 800만원

(주)아이퀘스트

김○연(비호지킨림프종/서울아산병원) 1,000만원

(주)이베이코리아 옥션

김○경(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 800만원  
류○진(재생불량빈혈/분당차병원) 2,000만원  
신○아(재생불량빈혈/서울아산병원) 2,000만원  
신○원(혈구탐식성조직구증식종/해운대백병원) 1,000만원  
조○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1,000만원  
채○원(황문근육종/서울아산병원) 2,000만원

재활치료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남○철(상의세포종/삼성서울병원) 400만원

세마을금고중앙회

조○주(망막모세포종/대구파티마병원) 300만원

해피빈

김○현(성상세포종/해운대백병원) 500만원  
박○은(뇌종양/삼성서울병원) 300만원

(주)드림택토리클럽

김○우(원시신경외배종양/삼성서울병원) 1,000만원

치료비

고객개인,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은(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서울성모병원) 700만원  
정○현(뇌종양/삼성서울병원) 500만원  
홍○호(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삼성서울병원) 800만원

김동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종(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5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원(유잉육종/국립암센터) 1,000만원  
서○빈(연부조직육종/국립암센터) 800만원  
원○주(방광암/국립암센터) 800만원  
이○주(황문근육종/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이○호(결합성소원형세포종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정○종(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800만원  
정○현(황문근육종/국립암센터) 800만원  
조○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690만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하(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7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오○윤(연부조직육종/삼성서울병원) 4,739,894원

삼성전자로지텍, 지정기탁

문○진(간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700만원

서울마추협회

정○종(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만원

세마을금고중앙회

노○영(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500만원  
류○진(중증재생불량빈혈/분당차병원) 690만원  
오○윤(연부조직육종/삼성서울병원) 500만원  
이○서(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800만원  
이○호(결합성소원형세포종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정○윤(소형골수단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500만원  
정○현(뇌종양/삼성서울병원) 800만원

신한금융지주회사

김○록(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 7,064,040원

엑센슈어

김○진(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200만원  
김○희(간모세포종/영남대학교의료원) 500만원

우정사업본부 각 300만원

김○윤(급성골수성백혈병/해운대백병원)  
김○현(재생불량빈혈/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박○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오○음(급성림프모구백혈병/세브란스병원)  
윤○우(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이○라(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이○영(뇌종양/국립암센터)  
조○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조○환(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  
최○음(간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정영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욱(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600만원

피피디밸류먼트 피티어엘티디

최○선(중증재생불량빈혈) 3,706,551원

한국증권금융,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음(급성림프모구백혈병/세브란스병원) 1,000만원  
차○나(뇌종양/삼성서울병원) 500만원

**한전케이디엔(주)**

김○욱(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6,808,840원

**(주)국민은행**

김○솔(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 100만원

**(주)드림팩토리클럽**

조○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500만원  
조○환(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 500만원

**(주)코스콤**

김○재(중증재생불량빈혈/부산대학교병원) 1,000만원

**(주)토탈소프트뱅크**

김○현(판코니빈혈/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500만원  
김○욱(뇌종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300만원  
김○현(골육종/동남권원자력의학원) 500만원

**KB금융지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선(중증재생불량빈혈) 3,491,016원

**2012MBC어린이에게세생명을**

황○지(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13,828,530원

**간접치료비**

**일시 간접치료비**

**박원기 기금**

김○현(판코니빈혈/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100만원

**삼성전자로지텍, 지정기탁**

문○진(간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300만원

**우정사업본부 각 100만원**

김○솔(재생불량빈혈/삼성서울병원)  
김○연(악성림프종/서울아산병원)

김○욱(뇌종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김○은(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서울성모병원)  
노○영(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류○진(중증재생불량빈혈/분당차병원)  
백○환(골수이형성증/국립암센터)  
정○현(뇌종양/삼성서울병원)  
홍○서(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울산항만공사**

이○원(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 820,690원

**홍명보장학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원(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 744,067원

**(주)이노션 각 100만원**

이○라(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한○익(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

**익명후원자 각 100만원**

김○진(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최○선(중증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

**정기 간접치료비 (신규)**

**기업은행노동조합**

김○욱(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아산병원)  
김○록(재생불량빈혈/서울대학교병원)  
박○빈(급성림프모구백혈병/전북대학교병원)  
서○영(랑게르한스조직구증/서울성모병원)  
정○우(뇌종양/삼성서울병원)  
정○솔(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정○현(뇌종양/삼성서울병원)  
최○음(간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최○후(유잉육종/서울대학교병원)

**양진의료재단**

손○민(급성림프모구백혈병/영남대학교의료원)  
이○리(급성림프모구백혈병/삼성서울병원)

**케이엘넷**

박소미(랑게르한스조직구증/서울대학교병원)

**태진인터넷서날**

박○현(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서○규(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이○광(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정○현(횡문근육종/국립암센터)

**한국거래소노동조합**

김○현(섬유육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한인터넷인먼트**

조○주(버킷림프종/서울성모병원)

**(주)효성 연양공장**

박○기(흉선악성신생물/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SK이노베이션**

최○용(급성림프모구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  
황○연(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가발**

**하이모**

이○석(급성림프모구백혈병/세브란스병원)  
정○정(급성림프모구백혈병/고신대학교 북음병원)  
조○은(급성림프모구백혈병/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KB국민은행**

송○인(급성림프모구백혈병/서울성모병원)  
이○서(골육종/원자력병원)  
차○유(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최○준(횡문근육종/부산대학교병원)

>>> KCLF

신규  
후원자  
소식

2013. 6. ~ 2013. 8.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효신 권성숙 김나현 김무수 김미혜 김의순 김정란 김제홍 김진명 김태복 김혜린 김효진 노나경 박상길 박영련 박일환 설수경 설유리 소영미 송시윤 송지원 안현경 오상훈 오수옥 오영나 유상선 유수정 유지현 윤산호 윤숙경 윤우혁 이강수 이경미 이계현 이성은 이세라 이순희 이은미 이정민 이종철 이주현 이주희 이현준 이해경 임민아 임민철 장유정 정승은 주서영 최수정 하영미 한숙량 한준식 홍성자 황미연

일시후원

강재우 권유하 김강빈 김경수 김관식 김동준 김성호 김영규 김영빈 김은우 김지윤 김지은 김태영 류수환 박기범 박종범 박채현 방금자 양희식 이정호 이주용 임승현 임은영 천우영 황지선 경북대병원어머니들 김성진김나연 레미안퍼스티지명필어르신 백산유치원 쌍둥이엄마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청춘' 카리스마어르신 학생여고3학년5반

후원물품

김민규 과일 김정민 음료 배성민 감자 엄태현 옥수수 이정훈 음료 이단비 마늘 제주신라호텔 프로그램비 카페여우야 학용품세트, 레고, 물티슈

헌혈증 (장)

권현경(3) 김건기(10) 김삼태(40) 김숙경(3) 김하연(3) 김형일(31) 박상욱(2) 박현규(48) 배상민(7) 서현정(1) 송남근(63) 송영기(30) 신기혜(22) 양예은(50) 양정현(1) 원창섭(5) 윤선우(74) 이기영(10) 이종철(15) 이현아(9) 이형우(23) 이홍기(3) 정라희(6) 정지은(14) 조수연(65) 조옥현(4) 조현지(2) 천강재(10) 하주형(17) 한준식(2) ㈜디엔에프 POC동호회(33) 경기지방경찰청 기동10중대(30) 경북대학교 총학생회(30) 광주여대간호학과(12) 김해울하고등학교(167) 동명기술공단동대구역고가교(12) 드림팩토리클럽(226) 디시인사이드 문채원갤러리(213) 레미제라블코리아(317) 목원대학교 TV영화학부(26) 배우이준기 팬덤연합(80) 새마을금고(2,000) 생명의말씀사(50) 신구대학 방사선과(153) 신남고등학교(21) 춘천에스샵(24) 충청지방우정청(13) 한국전력공사 통영지사(2) AJ렌터카(291) APT종로점(462) CI대한통운(600) KTDS(117) SK하이닉스(300)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농 협 : 029-01-176943  
새마을금고 : 9002-1557-6919-6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 체 국 : 012989-01-003327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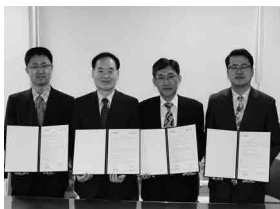
# KCLF 희망소식

## 이승환 홍보대사 차카게살자 공연



재단 이승환 홍보대사는 2001년부터 매년 '차카게살자' 공연의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차카게살자' 기금 뿐만 아니라 이승환 홍보대사 개인, 그리고 팬들의 모금까지 함께 재단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 한마음혈액원 기부 협약



한마음혈액원은 기부 상품 중 '기부권'을 마련하여 헌혈자가 '기부권' 선택 시, 1장 당 4,000원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로 적립하여 재단으로 전달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헌혈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호수의나라 수오미



호수의나라 수오미는 2011년부터 매년 순둥이 물티슈 판매금액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도 후원금과 물티슈를 전달하였으며, 후원금은 쉼터 에어컨 교체에 사용되었습니다.

## 삼성전자로지텍 후원금



삼성전자로지텍 임직원은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십시일반 모금 활동을 펼쳐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치료비를 전달하였습니다.

## MG새마을금고 헌혈증 전달



새마을금고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에 이어 '새마을금고 가족 헌혈 캠페인'으로 모아진 헌혈증 중 2,000장을 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 KB국민카드, 노블피에스타 행사 후원금 전달



KB국민카드는 최우수고객 행사인 '노블 피에스타'를 진행하여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노블 피에스타는 '나눔을 실천하는 축제'라는 의미를 지닌 VIP고객 대상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의 참가비와 KB국민카드의 매칭 기부로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놀이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니코리아, 광고 촬영의상 경매 수익 기부**

소니코리아는 옥션에서 진행된 '손예진, 이병헌의 SONY광고 촬영 의상 경매'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희망튼튼 우리아이 건강지킴이**



항암치료로 인해 낮아진 면역력 때문에 생활 환경관리가 필요한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을 돕기 위해 2007년부터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50가족에게 주거환경개선물품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외환은행나눔재단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스타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인피니트 남우현 팬사이트 'HONEYTREE with HONEYBEE' 에서는 남우현군의 생일을 맞아 앨범 및 문구용품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 비스트 이기광 팬사이트 'Meet the universe' 에서는 이기광군의 드라마 주연 데뷔를 기념하여 심터에 필요한 물품(청소기, 수건, 섬유유연제 등)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 B. A. P 팬페이지 'Petit Bandit! & 너를 만나는 시간 1:24' 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앨범과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디시인사이드 문채원갤러리' 에서는 문채원씨의 새로운 드라마 시작을 기념하여 현혈증 213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비스트 이기광 공식팬카페 '위드기광' 에서는 비스트 콘서트를 기념하여 쌀화환 500kg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배우 '이준기 팬덤연합' 에서는 이준기씨의 새로운 드라마 시작을 기념하여 현혈증 80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13회 완치기원 연날리기**



6월 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 제13회 소아암 어린이 '완치기원 연날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가족 140여명이 참석해 연날리기, 놀이마당, 유람선 승선 등을 함께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높이 나는 연처럼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완치의 희망도 높이 날아오르길 함께 기원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NH농협카드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체험**



NH농협카드의 공익기금 지원으로 소아암 어린이 '문화예술체험'이 지역별로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6일, 부산에서의 '꼬마버스 타요' 관람을 시작으로, 대구에서는 '태양의 서커스', 광주에서는 '몬테크리스토' 공연을 관람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40가족, 140명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9월 3일~4일, 에버랜드에서 한사랑 문화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른 9월이지만, 제법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 소아암 어린이

### 자기성장프로젝트



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여행했습니다. 여행하면서 알게 된 완치자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새로운 희망을 함께 꿈꾸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NH농협카드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지난 6월 25일~27일,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에서 힘든 치료를 멋지게 이겨낸 완치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

### 제13회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지난 6월, 서울경인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혼자 캠프에 보내어 염려된다는 부모님의 걱정이 무색하게 아이들은 신나게 달리고, 찾고, 웃으며, 질주하는 어린이의 에너지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의 형제들,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



당하고 있는 치료당사 자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형제들과 함께 치료과정을 공유해 간다면, 아이들이 남몰래 감추었던 '두려움'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용기'로 바뀔 겁니다. 소아암 어린이 형제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 박슬기와 함께 한 노랑리본 캠페인



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가족과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박슬기씨! 감사합니다!

7월 24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과 방송인 박슬기씨가 완치를 기원하며, '노랑Reborn+'을 만들고, 이후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함께 하였습니다.

### 위대한 블로거 발대식



5개월 동안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 나눔에 대한 경험을 자신의 블로그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14명의 위대한 블로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지난 7월 19일, 희망미소 소아암센터에서는 재단의 온라인 나눔메신저인 위대한 블로거 3기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완치자는 희망이다!



제7회 소아암 완치자 희망장학금 전달식이 8월 21일, 희망미소 소아암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소아암 완치자 대학(원)생 10명에게 각 3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소! 아! 암! 을 이겨낸 수퍼맨 대학생, 소아암 완치자!

그 독한 항암치료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10명 모두모두 한 목소리로!

'재미있는 것을 찾아 보세요! 최대한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반드시 희망은 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치료 중, 시간 많을 때, 영어공부 하지 않았던 게 후회돼요.'라고. ^^;;

*애들아~! 영어공부 하자!*

치료 중인 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궁금한 점도 묻고, 10년 후 다시 이 자리에 오자고 다짐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자 아자! 아자! 10년 후, 다시 만나자!*

또, 선정자 분의 남자 친구! 여자 친구!도 함께 했습니다.

여자 친구가 예뻐서 사귀었고, 아팠다는 것을 알고는 더 예뻐 보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쁜 단남 앞으로도 쭉~욱 이어가세요!*





이번 희망장학금 전달식에는 30년 이상 소아암 치료에 헌신한 안효섭 이사가 참석하여 치료해 주었던 완치자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해 주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소아암 완치자 희망장학금!  
우리 친구들의 희망을 계속 계속 응원할 겁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마음/풍/경



오후 1시의 농촌마을, 지우 작

산들바람이 부는 평화로운 어느 봄날.  
늘 그러하듯 농부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 그림을 통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합니다.

의상디자이너가 꿈인 지우는 14살,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 소녀입니다.

발행인 / 오연천 편집인 / 서선원 발행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7 인설빌딩 4층 전화 / 02)766-7671(대) 팩스 / 02)766-7674

🏠 [www.kclf.org](http://www.kclf.org)    ✉ [cancer@kclf.org](mailto:cancer@kclf.org)